



+ 장익선 · MBC 제작기술국 영상기술부

서양 미술 속 빛과 색

5W1H와 램브란트의 레시피

1부. 인상주의 회화의 빛과 색의 표현 2부. 모네(Claude Monet) 3부. 램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5W1H

초등학교 시절 우리는 국어 시간을 통하여 '육하원칙'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다. 이 육하원칙을 국어사전에는 "역사 기사, 보도 기사 따위의 문장을 쓸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여섯 가지를 이른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교육과 훈련들을 통하여 육하원칙을 통한 글쓰기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육하원칙에 익숙해질 차례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논문, 보고서 등의 논리적인 글에서 완벽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육하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듯, 조명을 함께 있어서도 이 '육하원칙(5W1H)'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1부와 2부를 통하여 조명의 원재료인 "무엇(What)", 즉 빛과 색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어진 원재료를 어떻게, 즉 어떤 방법(How)으로 요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이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여러분에게 인상주의에서 바로크로 서양 미술사의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램브란트'의 이야기를 뒤에 소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상상하고 풍부한 요리 재료인 빛과 색을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램브란트'의 작품 속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조명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 곧 빛과 색을 '어떻게(How)?' 요리할 것인가에 대한 레시피이기 때문이다.

램브란트의 레시피를 공개함에 앞서 잠시 조명에서의 '육하원칙(5W1H)'을 살펴보자. 조명을 기획, 연출함에 있어 5W1H는 완벽한 조명계획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 조명을 연출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 ① 누구(WHO)? - "조명을 연출하는 주체" 혹은 "조명의 대상"
- ② 언제(WHEN)? - 조명의 표현(낮, 밤, 새벽, 황혼 등) 및 Location시 주의사항
- ③ 어디서(WHERE)? - 조명 설계시 고려사항(장비 및 전원 문제 등)
- ④ 무엇을(WHAT)? - "조명의 재료" 혹은 "조명의 대상"
- ⑤ 왜(WHY)? - 조명의 목적
- ⑥ 어떻게(HOW)? - 조명의 방법

다음은 5W1H에 근간한 Planning Lighting에 대해 외국 서적에 소개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Planning Lighting

1. Where is the shoot in the studio or on location?

STUDIO questions

2. What equipment is already available?
3. What is a control system?
4. What lighting supports are available?
5. Is it a saturated rig?
6. What scenery is and should it be lit?

Location questions

7. What power supply is available?
8.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9. Which way is south?
10. Are there in the windows? Where?
11. Will there be any ambient lighting?
12. Is it a 'day for night' or 'night for day' shoot?
13. What time of year is the shoot?

General questions

14. How big is the acting area?
15. How much money can be spent?
16. How many scenes are there and how do they differ?
17. When is the imagined scene taking place?
18. Where is it taking place?
19. What lighting is assumed in the scene?
20. How many performers are there?
21. Where do they move to?
22. What camera positions are planned?
23. How is the sound to be covered?
24. How mobile are the camera positions?
25. Are there any fire or other hazards?
26. Is the lighting to simply illuminate, interpret or to add extra effects?
27. How long can we spend rigging the lights?
28. Are there any 'practicals'?
29. What visual style does the programme have?
30. What cameras are being used?

바로크 시대의 빛

인상주의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 즉 좋은 영상을 구성하는 5대 요소 중 하나인 “White”에 대해 기록하였다면, 바로크는 바로 빛의 동반자인 “Black”에 대해 표현했다.

바로크 회화에서 보여 지는 조명 기법은 빛을 통해 만들어 지는 Highlight와 Shadow를 통해 강렬한 명암처리와 어두운 부분의 암시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고, 부분적인 빛 사용을 통하여 독특하고 극적인 Look을 만들어 냈다.

이 시기의 빛의 표현은 조금 더 개성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림에 적용됐으며, 단정한 르네상스 미술에 비해 감정이 넘치는 드라마틱한 표현이 특색이다. 그리고, 바로크 회화는 종교관과 자아의 합일의 주제에 있어서 종교적 의미도 주관적인 성격을 띠게 됐으며, 그것은 생성과 소멸의 역동적인 형태로 빛은 생성의 의미로 어둠은 소멸의 의미로 상징되어 나타난다. 이때에 이르러 빛은 현실과 내면의 세계를 동시에 비추는 이원적인 것으로 등장한다.

램브란트의 레시피

이젠 램브란트가 우리에게 알려준 레시피를 열어보아야 할 시간이다.

바로크 시대 화가들의 빛의 표현은 인물을 화면에서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램브란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사용한 빛이 직사(直射)적이고 인위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는 특히 사람과 사물의 표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피사체의 표정을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통해 포착해 내는 것이 그만의 기법이었다.

그의 회화적 기법을 조명 기술의 표현 기법으로 접목한 것이 바로 램브란트 조명이다. 램브란트 조명은 오늘날 영화에서 Low Key 조명으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조명이 카메라를 향한 반대쪽 얼굴의 45도 위치 상황에서 아래로 비추는 조명 기법을 일컫는다.

램브란트 조명은 주광의 위치에 따른 그림자가 얼굴 부분에 생기고, 눈 아래쪽에 빛이 닿는 Mid tone 부분의 영역이 서로 만나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을 “램브란트 트라이앵글” 또는 “램브란트 패치”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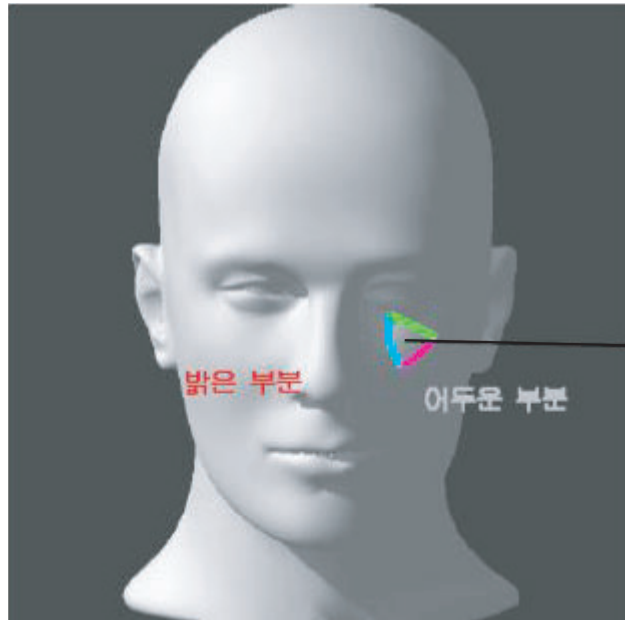
램브란트 패치의 특성¹⁾

- ① 얼굴의 어두운 부분 눈 아래에 만들어져야 한다.
- ② 입술 위쪽으로 있어야 하면, 주로 볼 부근에 나타난다.
- ③ 코 밑으로 내려가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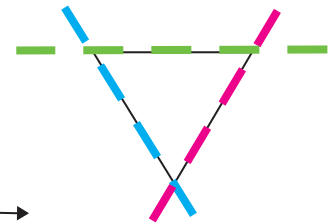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인물의 표현임을 여러분도 느낄 것이다. 오늘날 램브란트 조명기법은 사진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조명기법 중 하나가 돼버렸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이 두 장의 그림 속에 오늘날의 드라마적 인물표현이 전부 담겨있는 것이다. 놀랍지 아니한가?

1) 램브란트 조명 디자인, 2004년,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미디어 공학과 조흥미, 그림인용



(a) 렘브란트 패치 위치



- eye shadow curve(green) : 눈 그림자
- cast-shadow curve(cyan) : 코 그림자
- self-shadow curve(magenta) : self-shadow

(b) 렘브란트 패치의 구성



[자화상]



[자화상, 1669, 런던 내셔널 갤러리]

D.W.Griffith

램브란트의 회화기법이 오늘날 드라마, 영화, 사진 등의 보편적 조명기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영화 역사의 한 축에 그 이유가 있다.

1907년 에디슨 영화사의 감독 겸 촬영기사였던 Edwin.S.Porter에게 한 청년이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왔다. Edwin.S.Porter는 그가 쓴 작품보다는 오히려 그의 외모를 높이 평가했던지 그를 배우로 기용하여 영화를 찍게 된다. 그 청년은 그 이듬해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 “둘리의 모험”이라는 작품을 들고 데뷔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D.W.Griffith 이다.

그는 1915년 남북전쟁 직후의 혼란한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국가탄생”이라는 영화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 영화를 시점으로 영화 역사에 많은 것들을 뒤바꾸어 놓게 된다.

그는 Shot이 영화 언어의 기본이라는 영상 문법을 만들어냄으로써, 카메라 촬영법의 토대를 마련하고 편집의 개념을 확립시켰다. 전경을 통해 객관적인 서술만 하였던 이전의 영화와 달리 장면들을 Long shot, Medium shot, Close Up shot으로 분할하여 촬영하고 장면들의 편집을 통하여 스토리를 완성함으로 영화의 표현 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특히, 당시로서는 금기시 됐던 Close Up shot을 과감히 도입하여 배우의 표정연기를 통한 감정 및 심리의 표현이 가능하게 됐으며, 여기에 Highlight와 shadow가 만들어내는 contrast 강한 느낌의 조명기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램브란트 조명 기법이다.

다시 램브란트의 레시피

램브란트의 회화적 표현, 그리고 조명 기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암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이다. 램브란트는 물감을 두텁게 차곡차곡 쌓아올림으로서 어두움을 표현했고, 그의 이러한 표현은 밝고 현란한 컬러와의 대조를 보다 강하고, 돋보이게 만들었다. 그 결과 그의 몇몇 작품에 나타나는 빛은 Low Key 기법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Highlight의 빛이 눈부시게 빛나 보이며, 극단적인 빛에서 암부로 차츰차츰 부드러워지는 명암의 효과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램브란트의 빛은 인상주의의 빛처럼 보이는 데로 그리거나 혹은 단순히 보기 좋게 그리려는 과정이 아니라 자연광을 자신의 임의대로 재구성하여 주제와 상황에 맞게 빛을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과정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Planning lighting”이며, 5W1H에서 WHO와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영화 및 드라마, 사진의 주목적은 시각적으로 이야기 전달하기(Visual storytelling)에 있다. Ross Lowell의 저서²⁾에는 효과적인 시각적 이야기 전달을 위한 조명의 6가지 목표가 소개되어 있다.³⁾

- ① 관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준다.
- ② 분위기, 상황, 드라마 등 극적 긴장감을 더해 준다.
- ③ 원근감 및 깊이감을 생성한다.
- ④ 하루 중 어느 시간대인지, 어느 계절인지를 묘사한다.
- ⑤ 등장인물의 성격, 상황을 묘사한다.
- ⑥ 장면의 미적 표현에 대한 기능을 한다.

2) Matter of Light & Depth, Lowel-light Manufacturing, Inc. 2004

3) 인용, 조명의 6가지 목표, 램브란트 조명 디자인, 2004년,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미디어 공학과 조홍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준 레시피의 기본 원리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레시피는 무척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술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위대한 아티스트들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레시피들을 제작 현장에서, 디자인 현장에서 창의적 형태로 새롭게 탈바꿈시킬 때 우리는 대중들이 원하는 진정한 요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렘브란트 이젤]



[자화상]